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8호 【루계 제24611호】 주체103(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아포수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아포수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연구소는 연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에 대한 연구사업과 양어는 물론 물고기가공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실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이곳 연구소를 인민군대에서 운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연구소에 들어서니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을 비롯하여 2차례나 이곳을 찾아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못견디게 그립다고 하시면서 이 연구소도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애민유산중의 하나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낳은 결정체인 연구소구내에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자고 하시면서 몸소 그 자리를 잡아주시였으며 연구소의 이름을 천아포수산연구소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공수정실, 알발육실, 실내 및 야외양어못, 사료가공장, 물고기가공공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연구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천아포수산연구소를 현대적인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는 양어 및 물고기가공의 핵심적이며 중추적인 기지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양어에서 기본은 종자, 물, 먹이라고 하시면서 연구소에서는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어종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양어에 적합한 물문제를 풀며 먹이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양어에서도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양양어연구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연구소에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선발배치하고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잘 꾸리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천아포수산연구소에서는 여러가지 물고기가공품들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연구소에 현대적인 물고기가공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데 맞게 어종별에 따르는 가공방법과 물고기가공품의 가지수를 바로 정하고 우리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면 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설비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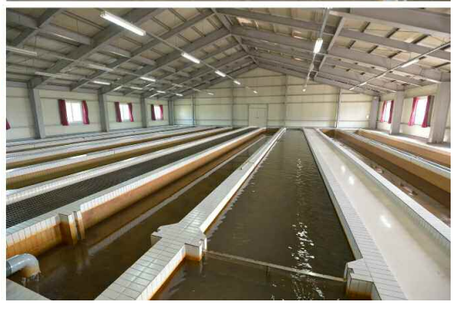
물고기가공품을 많이 생산하자면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그 대책도 세워주시고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천아포수산연구소가 자리잡고있는 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어촌마을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인민군대에 천아포수산연구소의 관리운영을 맡기였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에서는 양어에서도 세계패권을 쥐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한없는 믿음을 받아안은 연구소와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맡겨진 본분을 훌륭히 수행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아포수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2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하싼 레자 허쎄이니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이 16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현영철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쿠웨이트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쿠웨이트 타임스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7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김일성주석회고 쿠웨이트위원회 위원장 쟈위드 아흐마드를 비롯한 회고위원회와 출판사의 인사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위원장은 로작을 출판하게 된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은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고있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 계시는 한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령도자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김일성주석각하의 영생을 기원하며 김정은원수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한다. 출판사 판매국장은 김정은령도자각하의 로작을 두번째로 발행한다, 앞으로 평화와 안전,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글들을 많이 게재하도록 하겠다, 자주권과 안정을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더 큰 승리가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원수를 모신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국제사회계가 강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2년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소식은 전세계를 들끓게 하였으며 진보적인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더욱 확신케 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성명은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조선인민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깊이 체득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고 계신다.

김일성대원수, 김정일대원수 그대로이신 김정은원수는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조선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내여나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빼루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은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릴데 대한 결정이 발표된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력사적인 선언으로 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해 헌신하고계신다고 성명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천출명장으로서의 천품과 자질,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은각하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라고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은각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의 반영이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언제나 선군장정의 길에 함께 계시며 천재적인 군사적지략과 령군술로 조선인민군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그이의 령도가 있어 조선의 자주권은 확고히 담보되고 조선은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 있는것이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은동지께 공화국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릴데 대한 결정이 발표된것은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쌓으신 업적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경모의 분출인 동시에 조선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신다.

그이는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선군조선의 또 한분의 태양이시다.

민주꽁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조선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계신다.

김정은각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림으로써 조선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계에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은원수를 높이 모신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인류자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모신 선군조선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크나큰 생기와 활력으로 약동하고있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이 차넘치고 온 나라가 비약과 혁신의 기상으로 들끓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력사의 온갖 도전을 파감히 짓부시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놓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2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기상이 온 누리에 떨쳐지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7월 17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행운을 깊이 새겨주는 혁명적경사의 날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의의깊은 날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변혁과 위훈은 우리 공화국의 대원수님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성스러운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쳐온 군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존엄과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선 인민이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것은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며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시여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래전부터 그이를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령도자로 흠모하며 받들어왔다.

지난 2년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이 더욱 더 뚜렷이 과시된 영광스러운 나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특출한 조직적수완, 숭고한 덕망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과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건설과 군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시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시여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찬란한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시고 투쟁하여온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나가고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다는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건설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사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사상리론들은 우리 혁명의 힘찬 진군을 추동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며 승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적예지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의도하신대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천만군민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이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치의 헛갈림도 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모신 때로부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당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온 누리에 존엄떨치고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끊임없는 강행군현지지도로 대고조전투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대중의 심장속에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선군조선의 모든 기적과 위훈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수산업발전과 농업생산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기적들이 창조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도, 못해낼 일도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치시며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피눈물의 언덕에서부터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의 전로정은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빛나고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것이 믿음이며 동지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천하를 얻고 만사를 해결할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철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모든 날과 달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민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지게 되였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초소에도 서슴없이 나가시여 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떠나간 전사들의 묘주가 되시여 그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였으며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뜨거운 열과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세계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정으로 맺어진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되고있으며 우리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고 혁명할수도 없다는 불변의 신념, 원수님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는 철석같은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우리 공화국의 크나큰 자랑이고 힘이며 우리는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기어이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령도체계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길에 강성번영도 있고 최후승리도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 핵으로 틀어쥐고 혁명적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모든 문제를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옹위하는 천결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권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최대중대사로 여기고 모든 사업을 수령결사옹위의 각도에서 보고 대하여야 한다. 순간을 살아도 령도자를 위해 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진정한 동지, 전우가 되여야 한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것이라면 열백밤을 패서라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해놓는 견결한 혁명가, 참된 충신이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이며 우리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드는 억척의 지지점이다. 최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각종 타격훈련과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발사훈련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만을 받드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진짜배기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무적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군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원호하며 선군조선의 밀뿌리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총대를 사랑하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건드릴수 없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오늘의 김정은시대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력사,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시대, 비약과 변혁의 시대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초소와 일터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길이 있다.

우리는 《조선속도로 세계를 앞서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번영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농업전선을 우리 혁명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정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만풍년의 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에 강성국가건설의 전진속도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최첨단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억센 기상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붉은 당기와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휘날리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영광 하늘땅에 넘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2돐을 맞으며

위대한 선군령도로 꽃피우시는 인민의 행복

우리 인민은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그이를 우리 원수님이시라고 부르고있다.

2년전 7월의 잊지 못할 그날부터였다.

지금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력사적인 결정이 선포되던 주체101(2012)년 7월의 나날을 돌이켜보느라면 가슴은 절로 높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경축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전국도처에서 결의대회와 경축대회, 결의모임이 진행되고 필승의 신심과 용기에 넘친 천만군민의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로 끝없는 격정에 젖어있던 그날의 감격은 오늘도 우리 군민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은 7월의 하늘가에 나붓기는 최고사령관기에서 찬란히 빛나는 원수별을 바라보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뜻깊은 7월 17일을 맞는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년 암반으로 다져지고있는 신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자면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고 그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이 부름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친근한 호칭이며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상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심으로써 이 땅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력사가 더욱 줄기차게 흐르게 되였으며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가장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시대로 끝없이 빛을 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신것은 그이께서 공화국원수로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가장 불멸할 업적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백두산대국의 영상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에 떠받들려 금수산태양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더욱 숭엄하게 꾸려지고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졌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령도사, 선군령도사가 깃들어있는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백두의 천출명장을 공화국의 원수로 높이 모실 때 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인민의 만복이 꽃펴난다는것은 성스러운 선군혁명력사가 가르쳐주는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이 귀중한 철리를 더더욱 폐부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주는 7월의 언덕에서 그이께서 헤쳐오신 선군의 나날들을 소중히 안아볼수록 총대이자 인민의 행복이라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가슴을 쩌릿하게 한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들에게 값높은 삶과 행복을 안겨주고 그것을 억척같이 지켜주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그 밑바탕에 놓이는 제일 믿음직한 담보가 바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총대인것이다.

일찌기 총대와 남다른 인연을 맺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을 이끄시는 나날에 모든 사색과 활동의 최고기준으로 삼으신것은 인민의 리익과 행복이였고 국사중의 최대국사로 내세우신것도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군력강화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키우시여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심으로써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헤쳐가신 선군길에 격정없이는 받아안을수 없고 눈물없이는 새길수 없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새겨져있는것인가.

며칠전 코앞에 적들이 우글거리는 최전연초소에까지 몸소 나가시여 군인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해주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있지만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것은 인민군장병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의 초소들을 철벽으로 지키고있기때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찾으시는 인민군부대들마다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멸적의 선군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였고 백두의 훈련열풍이 나래치는 훈련장들에서 군인들의 종합전술훈련과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해주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떨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나날이 억세여지는 무적의 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마음놓고 아름다운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고 가꾸고 꽃피워가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 2년간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며 백두산혁명강군의 더욱 훌륭해진 면모에 대해 긍지높이 자부하게 되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멸적의 포성, 승리의 뢰성을 울리며 명포수, 명사수로 자라는 강군의 실체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세계적수준의 인민의 재부를 전적으로 말아 건설하는 창조자의 군상에서 경탄을 금치 못한다.

이태전 7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삼가 드린 감격적인 소식에 이어 전해진 그이의 혁명활동에 대한 첫 공식보도가 다름아닌 준공을 앞둔 릉라인민유원지를 돌아보신것이라고 생각할 때 군인건설자들에 의하여 일떠선 인민의 유원지부터 먼저 찾으신 원수님의 현지지도가 가지는 의미는 얼마나 비상한것인가.

언제인가 한 일군은 그날에 있은 감동깊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총대를 앞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은 세계적인 수준의 문수물놀이장건설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말하였다.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인민군대에서 맡아 진행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에게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위력을 다시한번 높이 떨칠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고 그처럼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은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의 기쁨넘친 행복의 웃음소리로 끝없는 메아리를 울리고있다.

인민군대를 강성국가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이 땅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우리 나라에는 불과 2년동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났는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은하과학자거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우리 인민군대를 조국보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수행하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업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렇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선군조선은 이렇게 인민의 행복을 가장 훌륭히 꽃피우는 군인들에 의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치고 있는것이다.

그 길에서 솟구쳐오르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 선군길에서 낮과 밤을 맞고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우리 군인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땀이 소중히 스며있으며 선군시대의 고상한 사상감정인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고있다고 생각할 때 선군이 가져다준 인민의 행복과 기쁨, 기적과 변혁의 폭과 깊이는 과연 얼마나 자랑할만 한것인가.

총대로 빛을 뿌리는 선군이야말로 최대의 애국, 최고의 인덕이고 무한대의 창조이며 인민에 대한 최상의 사랑이고 무궁한 번영이다. 바로 이것이 력사의 기적이 창조되고 위대한 변혁의 새시대를 펼치는 선군길에서 우리 천만군민이 심장깊이 새긴 귀중한 진리이다.

인민의 행복은 혁명의 총대에 의하여 지켜지고 더욱 만발히 꽃펴나게 되며 가꾸어진다.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누리에 빛날것이다.

최고사령관기에서 빛을 뿌리는 성스러운 원수별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준혁

조국수호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신 력사의 날을 며칠 앞둔 시각에 장엄한 포성이 울렸다.

최전연의 산발들을 뒤흔들며 온 나라 강산을 떨치는 우뢰와 같은 포성은 사회주의수호전의 흘러간 력사를 안고 휘황한 앞날에로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입니다.》

며칠전 동부전선을 지키고있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전연포병들의 포실탄사격을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공화국의 원수로 높이 모신 력사의 날을 앞두고 전투훈련성과의 자랑을 멸적의 포성으로 울릴 동부전선포병들의 일념은 불덩이 같았다.

원쑤들에 대한 서리찬 증오와 분노, 참을길 없는 보복일념을 명중포성으로 울리도록 사격명령을 내리시고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격정속에 우러르는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친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백발백중의 명중포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결사의 신념과 의지였다. 그 신념과 의지로 만장약된 포병들에게 어찌 격파하지 못할 강적이 있을수 있겠는가.

최전연의 전초병들에게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고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새겨준 동부전선의 포성은 사회주의수호전에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는 선군령장의 우렁찬 호소였다.

이때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모한 도발자들을 단숨에 짓뭉개도록 포병들의 포사격훈련도 지도해주시고 녀성방사포병들의 실탄사격성과를 축하해주시며 불멸의 화폭도 남기시였다. 주체포의 명중포성으로 뜻깊은 건군절을 장식하게 하시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울리신 조국수호의 포성은 강성국가건설전반에서 장엄한 메아리를 울리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갈 구상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사상전선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시였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며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도록 하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

농업전선과 과학전선을 비롯하여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원수님께서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창조의 포성이 울리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경공업공장에 가시면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공장으로 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인민의 웃음을 활짝 꽃피우는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는 리용자들의 편의부터 헤아리신 우리 원수님,

북방의 삼지연에서부터 바다가의 수산사업소, 애육원과 육아원으로부터 소년단야영소와 과학의 최고전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휘시키시는 우리 원수님의 발걸음소리가 울리고있다.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대결과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승리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릴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울려가시는 포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최후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주고 원쑤들에게는 멸망을 예고하는 력사의 뢰성으로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한영민

단상 뜻깊은 날

며칠전이였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물결속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가정이 있었다.

단란한 가정의 행복넘친 모습, 명랑히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목소리,

《아버지, 명절이 언제 있나?》

응석꾸러기 막내의 물음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총각애가 대답하는것이였다.

《이제 세밤만 자면 명절이야, 아버지 내 말이 맞지요?》

새별눈을 반짝이며 올려다보는 총각애의 얼굴에 웃음꽃이 함뿍 어리였다.

《옳다. 우리 맏이가 정말 용쿠나.》

아이들의 발에 날개라도 돋친듯 신바람이 난다.

《그래, 7월 17일은 뜻깊은 날이란다.》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뜨거워졌다.

7월 17일은 뜻깊은 날!

나라와 민족의 륭성발전에서 매우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을 명절이라고 할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신 7월 17일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찌 례사로운 날로 평범히 보낼수 있겠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지휘하시기에 이 땅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는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이 꽃펴나는 행복과 번영의 나날들이 수놓아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신 날을 더없이 뜻깊은 날로 맞이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은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받드는 이 땅의 천만자식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행운인것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가는 천만군민이 받아안은 끝없는 행복인것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최전연초소들이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

판문점에서의 기념사진

두해전 3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판문점초소를 찾아주시였을 때였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조국통일념원을 가슴에 새기시며 판문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번에는 판문점회의장구역에서 전투근무를 수행하는 경무관들과도 함께 기념사진을 찍겠으니 그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과 지휘성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공장과 농촌을 돌아보시는 길도 아니고 적아가 총부리를 맞대고 가장 예리하게 대치되여있는 판문점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몇배로 강화해야 할 전투근무성원들을 모두 철수시키다니…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에 부대지휘관이 황급히 현재 군인들이 자기 초소에서 전투근무를 수행하고있기때문에 아무래도 기념사진을 두차례에 걸쳐 찍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올리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지휘성원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일없다고, 최고사령관이 나왔는데 어느 놈이 감히 덤벼들겠는가고, 판문점은 오늘 최고사령관이 지켜주겠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근무를 서고있는 경무관들을 다 데려오라고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판문점초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겨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게 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대한 력사의 사실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전해지고있다.

작은 목선을 타시고

주체101(2012)년 8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장재도와 무도방어대를 현지시찰하실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군들은 저마다 약속이나 한듯이 막아나섰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은 단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류해나서는 일군들을 나무람하시며 동무들이 최고사령관이 장재도와 무도에 가는것은 신변상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나는 꼭 가야 한다고, 장재도와 무도방어대에는 나의 전우이며 동지들인 병사들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병사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넘쳐흐르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은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이를 더는 막아나설수 없다고 생각한 일군들은 하는수없이 해군에 련락하여 전투함정에 그이를 모시려 하였지만 그이께서는 그것도 만류하시였다. 이렇듯 백두령장의 단호한 결심에 의하여 작은 목선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날바다를 헤가르며 력사적인 섬방어대시찰을 떠나는 감동깊은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였다.

사랑의 부탁

지난해 5월 어느날이였다.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고기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종업원들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어로공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좋은 고기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 최전연 군인들에게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해줌으로써 당에서 마련해준 고기배가 은을 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기름냄새가 짙게 풍기는 기관실안에도 들어가시여 배의 기술상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선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척당 물고기잡이계획도 물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매 고기배당 해마다 1 000t은 잡아야 한다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어떻게 하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자고 하시면서 계획을 수행하게 되면 꼭 최고사령관에게 편지를 쓰라고, 기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사랑어린 말씀에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찬비쏟아지는 날에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시고 평범한 어로공들에게 사랑의 부탁을 하시다니.

우리 병사들을 위해 어제는 사랑의 고기배들을 보내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뜻깊은 일화를 남기시니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참으로 그날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선군조선의 군력이 과연 어떻게 억척으로 다져지고있는가를 전하여주고있다.

채히성

천만군민의 신념의 메아리-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길에 찾으시는 초소마다에서 우리 병사들과 억세게 팔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빨갛게 상기된 얼굴들을 어루만져주시는 그이의 다심하신 모습에서, 섬방어대의 평범한 군인가족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인자하신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친근한 어버이의 모습을 보았다.

마음만 먹으면 실용위성도 쏴올리고 핵보유국의 통장훈도 부르시는 담대한 기상, 적들이 우리의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군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는 승리의 명령으로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는 드센 배짱, 세계적수준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시며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문명강국에로 힘차게 이끌어가시는 비범한 령도력…

경애하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뜨거운 사랑 그 모든것에 우리는 완전히 매혹되였다.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열화같은 매혹으로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스스럼없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며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무한히 매혹된 우리 인민스스로가 택한 가장 공고하고 완벽한 단결이였다.

날과 달이 바뀔수록 우리는 더더욱 절감하고있다. 운명도 미래도 모두다 맡기고 따르며 받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를 더욱 확신하고있다. 하기에 오늘 천만군민은 심장으로 웨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그렇다. 이 세상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와 더 굳게, 더 억세게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영원히 백승만을 떨쳐갈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력사 세기와 세대를 이어 더욱 빛내여가리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귀한 전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 나가는 진정한 동지적관계로 굳게 결합되고있으며 온 사회에 군민일치의 미풍이 차넘치고있습니다.》

침묵 또 침묵,

군인들의 체취가 아직도 풍겨오는듯싶은 숙영지자리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한장의 편지가 삼지연군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조용히 옮겨갈뿐이였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루밤 숙영하면서 혁명전적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그처럼 귀중히 여기는 삼지연인민들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은 량이지만 우리가 쓰고남은 나무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가니 보태쓰길 바랍니다.》

…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하였던 군인들과 삼지연군의 인민들사이에 있었던 사실이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 혁명군대의 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백두산지구의 인민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고 저마다 격정을 터놓았다.

어찌 그들뿐이랴. 전군이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앉으나서나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것을 본분으로, 영예로 여기고있다.

이 자랑스러운 현실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하신 고귀한 가르치심이 되새겨진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

무성한 거목밑에 뿌리가 있듯, 굽이치는 대하에 마를줄 모르는 시원이 있듯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단결의 위력으로 새겨온 모든 승리와 영광의 자욱마다에 이 신념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어느해인가 조선인민혁명군이 액목현 관지부근의 한 마을에 주둔해있을 때의 일이다. 그때는 설을 앞둔 때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설명절이 박두한것만큼 메밀이나 감자가루를 구해다가 명절날 국수라도 누를수 있게끔 부락에 나가서 식량공작을 하게 승인해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한편 그 마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함께 설을 쇠게 되였다고 기뻐하면서 온 동네가 떨쳐나 명절음식들을 성의껏 준비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끼칠 부담을 생각하시여 지휘관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였다. 자칫하다가는 혁명군의 설명절음식때문에 마을사람들의 몇달분농량이 축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얼마후 부대에 철수명령이 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대를 이끌고 마을을 떠나시는것을 본 마을인민들은 서운함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극진한 마음에 깊이 감동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하나의 전투를 벌릴 때에도 인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렸으며 특히 적의 집단부락이나 성시를 공격할 때에는 사전에 인민들을 안전한 지대에 대피시키고 적들을 주민지대밖으로 끌어내다가 소멸하군 하였다. 이럴 때마다 우리 인민들의 감격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컸다.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신뢰심이 날을 따라 두터워졌다.

하기에 인민들은 친혈육이나 다름이 없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으며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하였다.

주체28(1939)년 9월경 돈화현의 한 부근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대원이 그만 심한 화상을 입은데다가 열병까지 겹치여 운신조차 못하게 되였다. 그는 한 낯선 집에 와서야 겨우 의식을 회복하였다. 성심성의로 위해주고 돌봐주는 그 집부부의 지성은 끝이 없었다. 어느날 대원은 녀인을 누님이라고 부르며 제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는 전염성열병을 앓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녀인은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말하였다. 《동무는 나를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누님으로 여기지 않는가봐요. 그래 진정한 누님이라면 앓는 동생을 어떻게 버릴수 있어요. 더우기 인민혁명군에 있는 우리의 아주 귀중한 동생을…》

얼마후 그 대원은 그들부부의 뜨거운 지성에 의하여 완쾌된 몸으로 다시 투쟁대오에 들어서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전쟁의 빛나는 년대기들마다에는 이러한 감동적인 화폭들이 수없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이 고귀한 전통은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을 거쳐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잊을수 없다.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군인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그리도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그 영상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군민대단결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변모된 수도 평양의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위훈의 결정체이며 군민대단결의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섬초소의 군인들을 위해 기울인 인민들의 지성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정세가 그토록 엄혹하였던 시기에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몸소 백두산으로 불러주신것이였다.

답사행군대를 맞이한 마을들은 항일전의 그 나날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조선인민혁명군을 맞이한 근거지마을처럼 환희로 들끓었고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화폭들이 펼쳐졌다. 원수님 보내주신 우리 군대가 왔다고 기쁨에 넘쳐 동네방네 뛰여다니는 아이들, 신발을 신을념도 못하고 달려나온 로인들, 농쟁기를 든채로 그들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돌아가는 녀인들…

그때 우리 군대의 지휘관들이 마을인민들의 손을 잡고 격정속에 웨친 말은 무엇이였던가.

《오늘의 빨찌산대장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시여 우리들이 왔습니다.》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전화의 나날에도 우리는 한 전호에서 싸웠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비쏟아져내리는 고지들과 적들과의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전구들마다에서 조국의 촌토를 목숨바쳐 사수하기 위하여 피흘려 싸우는 군대와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은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민일치는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영웅의 고지 1211고지가 있는 금강군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싸운 인민들의 투쟁이야기가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1951년 하반기부터 방대한 병력과 군사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고성이북지역을 차지하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고지를 피로써 지키면서 적들을 소탕하는 가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때 전선원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금강군 속사리의 인민들은 식량과 탄약을 소달구지에 싣고 1211고지로 향하였다.

적비행기들이 미친듯이 폭탄을 퍼붓고 기총사격을 하면서 발악하였지만 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소가 적의 기총탄에 맞아 다리를 상하게 되였을 때 그들은 탄약상자와 쌀가마니를 나누어지고 고지로 올랐다.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고지에서 속사리인민들을 맞이한 인민군전사들은 그들을 얼싸안았다. 그때 고지에서는 탄약이 떨어져 인민군전사들은 전호가에 돌을 쌓아놓고 결사전을 준비하고있었던것이다. 속사리사람들은 부상자들의 응급처치도 하고 기관총탄창에 탄알도 재워주었다. 그리고 군인들의 식사도 보장해주고 적들이 새까맣게 공격해올 때는 총을 잡고 병사들과 함께 싸웠다.

고성군 남강마을녀성들도 싸우는 인민군용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전선원호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남강마을인민들은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고지에서 싸우는 인민군대를 돕기 위하여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 떨쳐나서 용감하게 싸웠다. 녀성들은 탄약운반뿐만아니라 인민군전투원들의 식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차례씩 밥함지를 이고 고지로 올랐으며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포탄상자에 끈을 매여 고지로 끌고 올라가 전투원들에게 포탄을 넘겨주었다.

1951년 여름, 례년에 없이 크게 진 장마에 남강이 넘쳐나 수송로가 끊어지게 되였을 때에도 남강마을사람들은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아들과 남편을 전선에 내보낸 남강마을녀성들은 나라가 있고야 집도 장농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집에서 쓰던 당반널과 이불장까지 뜯어내여 떼를 무었다. 그것마저 마사지면 사품치는 강물에 뛰여들어 포탄상자와 식량을 운반했다.

상감령지구를 비롯한 전선중부의 인민들도 담가대, 전선위문대, 부상병위문대, 식사반 등을 뭇고 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을 적극 도왔다.

나어린 학생들도 전선원호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소년전선원호대를 뭇고 총포탄과 식량을 이고지고 싸우는 고지에로 올랐다.

이들뿐아니라 인민군전사들을 위하여 하루에도 몇차례씩 밥을 지어준 금강의 세 동서와 한몸의 희생을 무릅쓰고 인민군부상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쏟아지는 적탄을 몸으로 막아나선 사람들, 전시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굴속에 공장을 차려놓고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자기들앞에 맡겨진 과제를 수행한 로동계급 아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국을 지켜 인민군전사들과 함께 싸웠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민이 굳게 단결하여 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사상도 일치, 투쟁기풍도 일치

우리 조국의 불패성을 억척같이 떠받든 밑뿌리는 무엇인가.

천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한 억척의 일심단결이다.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그대로 체현한 우리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이것이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안변청년발전소란 말만 나와도 가슴에 솟구쳐오르는 뜨거움을 금치 못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살을 에이는 찬물속에 뛰여들어 무너져내리는 석축에 뜨거운 가슴을 내대던 군인들, 며칠동안 굴속에 갇혀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면서도 혁명가요를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관철에 모든것을 다 바친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영웅적투쟁기풍이 담긴 혁명적군인정신이 바로 그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창조되였기때문인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천만군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시여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오늘도 커다란 감명속에 되새겨보는 경희극 《편지》의 장면들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농촌에 달려온 군인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한해농사를 땀흘려 지어가는 나날에 뜨거워지는 군민의 정, 웃음과 눈물도 있고 오해도 있는 생활의 흐름속에서 군풍에 허풍이 날아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 뜻밖에 태풍이 무섭게 밀려오는 순간에 군인들이 결사각오하고 나서고 거기에 군관안해들이 따라나서며 또 농장원들이 달려와 군민이 육탄성벽을 쌓는 그 비장한 화폭…

온 나라에 인민군대와 같은 사상과 투쟁기풍이 차넘치면 내 나라, 내 조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살기 좋은 불패의 강국으로 만들수 있다는 철의 신념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위훈을 떨칠수 있었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산악같이 일떠서 돌진하는 장엄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강선의 봉화가 온 나라에 활화산처럼 타올라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섰고 희천속도, 대계도의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핵보유국으로 존엄높이 포전을 자기 집터밭처럼 알뜰히 가꾸어 해마다 알찬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그는 분조농사를 잘 지어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분조원들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우일

인민을 돕자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인민의 행복의 수호자,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며 유사시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해전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어느 한 공장로동계급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건설한 강성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이 훌륭한 곳에서 문화휴식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여기에는 인민군대가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는데서 언제나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은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이였던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결사전을 벌려 방대한 합장강정리공사를 불과 6일동안에 끝내고 보통강바닥파기와 호안정리도 9일만에 마무리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평양시 10여개 구역에 체육유희오락과 편의봉사시설을 그쯘히 갖춘 공원들을 새롭게 일떠세움으로써 수도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된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투쟁기풍은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기어이 집행하는것을 체질화한 인민군군인들의 단숨에의 공격기상으로 하여 남들이였던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결사전을 벌려 방대한 합장강정리공사를 불과 6일동안에 끝내고 보통강바닥파기와 호안정리도 9일만에 마무리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평양시 10여개 구역에 체육유희오락과 편의봉사시설을 그쯘히 갖춘 공원들을 새롭게 일떠세움으로써 수도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된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투쟁기풍은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기어이 집행하는것을 체질화한 인민군군인들의 단숨에의 공격기상으로 하여 남들이 10년이 걸려야 한다던 마식령스키장건설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다그쳐졌으며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이 나날에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였다.

오늘 인민군군인들이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과 위성과학자거리건설, 5월1일경기장개건공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것은 언제나 인민군대가 군민대단결의 주동이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자기의 숭고한 본분과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주동이 되여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갈것이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핵심부대,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군인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축하해주며 군민의 개건보수전투장에서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정을 두터이하고있다. — 본사기자 찍음

실농군청년분조장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청년분조장 김명옥동무는 영광의 땅에 순결한 량심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실농군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는 분조의 포전별지력상태와 품종별에 따르는 농작물들의 특성 및 재배원리,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적어놓은 자그마한 수첩을 늘 품고다니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분조원들을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매 분조원들의 특성에 맞게 작업조직을 잘하고 뜨거운 인정미로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 분조를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자랑떨치게 하고있다.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씨뿌리기, 김매기를 비롯한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하도록 이끄는 그를 따라 분조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포전을 자기 집터밭처럼 알뜰히 가꾸어 해마다 알찬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그는 분조농사를 잘 지어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분조원들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우일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수확고를 높이는 강냉이이삭목찌르기

◎ 구장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몇해동안 구장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들에서 강냉이이삭목찌르기를 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1.2배이상 높이게 하였다고 한다. 이 방법은 큰 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소출을 높이는것으로 하여 많은 농업부문 일군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강냉이이삭목찌르기방법을 받아들여 그 덕을 보고있는 군의 경험을 놓고보면 주목되는 문제가 있다.

우선 시기를 바로 정하는것이다.

그것은 강냉이대와 이삭을 련결하는 부분인 이삭목의 찌르기를 언제 하는가에 따라 정보당 수확고가 차이나기때문이였다. 시험한데 의하면 8월 5일경에 이삭목찌르기를 한 포전에서는 하지 않은 포전에 비해 정보당 수확고가 120%, 8월 20일과 25일에 한 포전에서는 각각 121%, 120%로 늘어났다.

때문에 경영위원회에서는 강냉이이삭목찌르기시기를 이삭수염이 마르기 시작하는 때부터 15~20일기간으로 정하였다. 이 시기에 영양물질이 이삭에로 이동되는데 이때 이삭목에 자극을 주면 그 주변에 상처를 빨리 원상회복하기 위한 재생호르몬이 형성되게 된다. 즉 이삭부위의 생합성기능과 활성이 강해지게 된다. 이 과정에 강냉이이삭에서는 영양이 약하여 알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던 알들도 온전한 알로 형성되게 된다. 또한 이미 형성되여가던 알들도 더 커지고 천알무게가 늘어나게 된다.

합리적인 도구를 리용한것도 좋은 경험이다.

강냉이이삭목찌르기에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찌르기를 하는가에 따라 소출에서 차이를 가져왔다.

농장들에서는 처음에 우산살과 자전거바퀴살, 송곳을 리용하였다. 그런데 이런 도구들은 식물체의 영양물질이동통로인 끌관과 채관들을 끊어놓아 수확고에 영향을 미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군들은 여러가지 도구를 리용하면서 수확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 과정에 칼 또는 얇은 철판을 리용하여 이삭목이 관통되게 찌를 때 효과가 크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칼이나 철판의 너비를 5, 10, 15㎜로 정하고 시험을 하였다.

5㎜너비의 칼로 찌르기를 하면 자극면적이 줄어들어 재생호르몬형성과 영양집중력이 약해지고 15㎜너비의 칼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칼을 조금만 경사지게 사용하여도 끌관과 채관이 끊어지는 수가 늘어남으로써 수확고가 줄어들었다.

10㎜의 칼을 리용한 경우 정보당 수확고가 제일 높았다. 경험에 의하면 이삭목 세로방향과 칼날방향이 같게 하여 찔러 관통시킬 때 끌관과 채관이 될수록 끊기지 않게 하는것이 좋았다.

이삭목의 어느 부위를 찌르는가도 중요하였다.

강냉이이삭목찌르기를 웃부위와 중간부위, 아래부위로 나누어 하였는데 중간부위에 하는것이 소출이 제일 높았다고 한다. 그것은 이삭목 가운데부위가 영양물질과 재생호르몬을 집중이동시키는 능력과 활성이 가장 높기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그전부터 강냉이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하지만 경영위원회위원장 리봉룡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감자싹틔우기가 한창인 읍협동농장에 나갔던 경영위원회 과장 류왕섭동무는 한가지 사실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감자의 싹부위를 칼로 자극해놓으니 싹이 빨리 트면서 굵어졌던것이였다. 그는 이 현상을 스쳐보내지 않았다. 그는 당장 시험해보기 위해 일부 식물들의 꽃꼭지를 바늘로 자극해보고 관찰하였다. 그랬더니 꽃잎이 커지고 색이 더 진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다.

(강냉이도 이렇게 반응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강냉이포전에 붙어살다싶이 하면서 여러가지 시험을 하였다. 결과 수정률이 높아지고 이삭무게가 늘어났다. 이 과정에 그는 수정이 된 강냉이이삭주변에 일정한 자극을 주면 상처를 받은 부위에 재생호르몬이 새로 생겨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후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 시험한 결과 그 우월성이 확증되여 널리 도입되였다.

이들처럼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는 강냉이이삭목찌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알곡생산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정성일

몽골 대통령특사 서해갑문 참관

몽골 대통령특사인 할트마긴 바뜨톨가 국가대회의 의원이 16일 서해갑문을 참관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의하여 20리 날바다우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서해갑문의 전경을 부감하였으며 갑문건설과정을 보여주는 록화물을 시청하였다.

특사는 또한 남포항을 돌아보았다.

몽골 대통령특사 서해갑문 참관

몽골 대통령특사일행 귀국

몽골 대통령특사인 할트마긴 바뜨톨가 국가대회의 의원과 일행이 1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주조 몽골 대사관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친혈육의 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저의 아들 리철진은 영예군인인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박사원에 다니고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전에 금성정치대학을 졸업하고 한 단위에서 녀맹사업을 맡아보는 김은옥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뜻밖에도 대학일군인 홍순철동무와 박사원 부문당비서 김선경동무 그리고 안동철, 리은만동무들이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왔습니다. 액정텔레비죤수상기와 담요, 첫날양복과 치마저고리 등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한가득 싣고왔던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결혼상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우리 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여주고 친형제가 되여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든 결혼상을 받을 때 신랑신부도 울고 우리모두가 울었습니다.

친혈육의 그 뜨거운 정이 우리를 울렸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워가는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핵무기보다 위력한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건해지는것입니다.

사리원시 구천4동 23인민반 최부용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문명생활

주로우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인민의 대중승마봉사기지가 련일 흥성이고있다.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주로마다에 경쾌한 말발굽소리와 행복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가득히 넘쳐흐른다.

특색있는 건축미를 자랑하는 여러 훈련장들과 봉사시설, 칠보산의 기암괴석을 옮겨다놓은듯 한 바위와 인공폭포, 정각들과 천막휴식장, 여름바람에 꽃잎을 흔들며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화단들이 이채로운 조화를 이룬 미림승마구락부의 정경은 주단우에 수놓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승마의 세계속에 몸을 잠그고 기쁨과 흥분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생의 희열과 랑만이 한껏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현대미가 나면서도 자연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꾸려진 실내승마훈련장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있다. 아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선다. 여기에서 말을 처음 타보는 사람들은 봉사원의 친절한 방조속에 말안장에 오르는 법과 말고삐를 쥐는 법부터 하나하나 터득하게 되는것이다.

달리는 말과 몸의 률동을 맞추면서 훈련장의 가녁을 따라 내닫는 사람들과 말고삐를 틀어쥔채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탄성과 웃음이 뒤섞여지며 실내승마훈련장이 떠나갈듯 하다.

승마훈련의 즐거운 시간속에 속보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새 말타는 묘리를 터득했는지 봉사원의 방조가 없이도 구보로 내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키작은 말들에 올라 행복에 겨워 어쩔줄을 모르는 어린 자식들을 대견스레 바라보는 부모들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피여오른다.

실내승마훈련장과 야외승마훈련장들에서 말타는 묘리를 충분히 익힌 사람들이 주로를 따라 기운차게 말들을 몰아간다. 서로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질주해가는 말들을 가리키며 사람들이 목청껏 응원한다.

별안간 사람들의 시선이 경마주로의 한곳으로 쏠린다.

결혼식을 하는 한쌍의 신랑신부가 경마주로에 들어선것이다.

이미전에 승마구락부에서 말타는 기술을 배웠는지 말잔등에 제꺽 오르는 신랑과는 대조되게 얼굴에 홍조를 머금은 신부는 사람들의 방조를 받아가며 겨우 말잔등에 오른다. 말들에 올라 나란히 선 그들의 모습을 일생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수 있게 사진사가 성의를 다하여 사진을 찍어준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모여온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새 가정을 이룬 그들을 축복해준다.

그들의 모습을 부러움에 넘친 눈길로 바라보던 청춘남녀가 조용히 귀속말로 속삭인다.

《우리도 결혼식을 할 땐 승마구락부에 와서 사진을 찍자구.》

《함께 말을 타고 달리면서 찍으면 더 멋있을거예요.》

봉사소에 가면 승마복과 무사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수 있다고 귀띔해주는 봉사원의 말에 신랑신부가 서둘러 걸음을 옮긴다.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신랑신부가 경마주로에 들어선다.

시간이 감에 따라 승마구락부의 정서를 한껏 더해주는 이채로운 풍경들이 련이어 펼쳐진다.

우리 인민이 마음껏 누리게 될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래일을 흐뭇한 마음으로 그려보게 하는 미림승마구락부, 향유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째서인지 뜨거운 눈물로 젖어든다.

《저는 오늘 가족과 함께 승마구락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야 평범한 로동자가족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속에 마련된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안겨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원수님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어찌 대동강구역 문수1동에 사는 한 주민의 심정뿐이랴.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쳐간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 인민의 생활이며 생명인 사회주의제도는 영원히 굳건하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은 이 땅우에 반드시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며.

본사기자 조경철

승마장과 더불어 꽃펴난 일화

이채로운 기념사진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말을 타고 신바람나게 내달리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옛날 전장에서 말을 타고 용맹떨치던 무사가 된 기분이라는 것이다. 갑옷에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장검을 휘두르며 침략자들을 물리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은 영화나 그림을 통하여 너무나도 생생히 우리들의 기억속에 자리잡고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넓고넓은 승마장에 정말로 갑옷을 입고 장검까지 차고 나선다면 그야말로 영낙없는 《무사》, 《소년장수》가 아니겠는가.

인민들의 그 소망을 헤아려서인가 여기 미림승마구락부의 봉사소에서는 얼마전부터 어른용, 아이용의 남, 녀무사복도 봉사해주고있다.

옷이 날개라고 《무사》가 된 기쁨을 안고 저저마다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들속에는 뜻깊은 결혼식날 이곳에 찾아와 갑옷을 입고 사진기앞에서 《무사》역을 수행하느라 진땀을 뽑는 신랑, 신부들도 있다.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사람들이 저저마다 찍고있는 이채로운 기념사진은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있는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그대로 전하여주고있다.

새로 생겨날 유희오락기재

미림승마구락부의 실내 및 야외승마훈련장에서 신바람나게 말을 타고 내달리는 쾌감도 좋지만 승마운동에서 쌓인 피로를 가신듯이 풀어주는 피로회복원에서의 향유도 사람들에게 즐거운 인상을 남겨준다.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마음껏 승마운동을 하고난 사람들은 피로회복원에 들려 안마봉사도 받고 목욕실에 있는 수중초음파안마기들도 리용하면서 쌓였던 정신육체적 피로를 마음껏 풀게 된다.

그리고 온몸에 가지가지 충격과 자극을 주는 의자식 전신안마기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기재이다.

우리 당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피로회복원에 유희오락기재들이 새로 들어앉게 된다. 그렇게 되면 피로회복원은 최상급의 조건이 마련되여있는 안마실, 수중초음파안마기들을 갖춘 목욕실과 더불어 사람들의 정신육체적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자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수 있게 된다.

피로회복원에 새로 생겨나게 되는 유희오락기재들, 바로 여기에도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리건일

더 높이 울려라 행복의 말발굽소리여, 만복을 누리는 인민의 기쁨안고.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또다시 오고싶은 곳

릉라곱등어관을 찾아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바다세계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풍치수려한 릉라도에 자리잡은 릉라곱등어관을 찾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그리도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사회주의문명국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일떠선 릉라곱등어관을 찾았다.

중앙홀에 들어서는 첫 순간에 온몸에 안겨드는 서늘한 기운으로 더위가 말끔히 가셔지고 정신이 번쩍 든다.

건물의 구조와 색갈, 조명과 온도에 이르는 모든것이 마치도 바다궁전에 들어선것처럼 정갈하고 청신한감을 주는 곱등어관의 내부, 수조안에서 꼬리치며 감도는 물고기들과 바다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주는 전광사진들, 물범이며 붉은바다거부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박제품과 물고기를 넣은 액침표본들도 전시되여있어 바다세계의 정취를 돋구어준다.

릉라곱등어관 기술부원 김연택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관람홀에 들어서니 마치도 아름다운 바다기슭에 선것 같아 마음이 상쾌해진다.

경쾌한 음악속에 전광판으로는 바다를 헤가르는 곱등어며 고래, 흰곰 등 바다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펼쳐져 보는 사람마다 공연시작전에 벌써 시원한 바다속에 푹 잠겨드는듯 한 감을 준다.

자강도 동신군에서 왔다는 한 로인이 안내원에게 공연수조를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다.

《이게 정말 바다물이 옳은가?》

안내원처녀가 생긋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바다물이 옳습니다.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이 건설되여 이렇게 사시장철 바다물이 흘러듭니다.》

그래도 꼭 확인하고싶었던지 수조의 물을 손가락에 찍어 맛보던 로인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바다물이 옳긴 옳구만.》

그 말에 안내원도 손님들도 즐거운 웃음을 터친다.

곱등어들의 재주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고 자랑하는 김연택동무의 이야기와 함께 드디여 공연이 시작되였다.

집체뛰여오르기로 관중에게 첫인사를 보낸 곱등어들이 갖가지 재주를 펼쳐보이기 시작했다.

동시공치기, 공안고 서서가기, 물우에 서서 뒤로 가기, 큰공날리기…

본능적으로 그물을 무서워하는 곱등어가 자그마한 꼴문으로 공을 몰고들어가 슛— 하는 모습도 볼만 하지만 보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것은 곱등어의 산수계산이다.

《다섯 더하기 셋!》 하고 손님이 문제를 내자 조교사가 그 문제를 수자로 표기하여 보여준다. 그것을 보고 알만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인 곱등어가 수조한쪽켠에 설치한 음향기재쪽으로 헤염쳐가더니 손님들이 보란듯이 주둥이로 기재의 꼬리부위를 여덟번 두드린다.

독특한 음향속에 수자 8이 전광판에 현시되자 순간에 장내를 들었다놓는 폭소와 박수가 터져오른다.

전설속의 《인어공주》가 곱등어와 함께 출연한데 이어 3인수중무용 《내 조국강산에 넘치는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준다.

또다시 곱등어들의 재주가 이어지고 끊임없이 울리는 관중의 명랑한 웃음속에 어느덧 40분이 흘러 공연이 끝났다.

떠나고싶지 않은 곳, 떠나면 또다시 오고싶은 곳이라고 하며 즐거운 이 하루를 추억속에 남기고싶어 곱등어들과 함께 교감사진을 찍는 사람들…

정녕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릉라곱등어관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훌륭한 바다세계가 아니겠는가.

글 승철진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사계절 피는 웃음꽃

문수물놀이장에서

지금 수도시민들속에서 인사처럼 오가는 말이 있다.

《문수물놀이장으로 갑시다!》

맑은 물 출렁이는 수조, 파도, 폭포…

생각만 해보아도 땀발이 걷히고 마음이 절로 상쾌해진다.

수도시민들뿐이 아니다. 출장이나 나들이온 지방사람들도 평양에 왔다가 문수물놀이장에 가보지 않으면 일생에 한이 된다며 앞을 다투어 물놀이장을 찾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누릴수 있는 가장 값높고 보람찬 생활입니다.》

문수물놀이장이 준공된 때로부터 반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 이름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과 생활에 얼마나 친근하게 자리잡고있는가.

얼마전 문수물놀이장을 찾았던 우리는 야외물놀이장에서 대동강구역 청류2동에 산다는 한 가족을 만났다.

알고보니 그들은 휴식일, 명절날에는 어김없이 문수물놀이장을 찾고있었다.

《야외물놀이장은 올해에 들어와 처음입니다. 실내물놀이장도 좋지만 야외물놀이장 역시 이를데 없습니다.》

해볕에 빨갛게 단 얼굴을 다소곳이 숙이며 30대의 녀성이 한 말이였다.

그 녀성의 말을 남편이 제꺽 받았다.

《며칠전 원산시에 사는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들과 송도원해수욕장에 가지 않겠는가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수물놀이장이 곁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파도가 없습니까, 바다물이 없습니까, 바위산이 없습니까.》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듯 흥겨운 노래소리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녀인들이 보였다. 수조들도 야외체육장들도 사람들의 웃음소리, 응원소리로 떠들썩하였다. 중년부부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저마끔 반기였다. 그들은 급강하물미끄럼대에 나선 소년은 자기들의 아들이고 조약대에서 우리쪽으로 한손을 높이 든 소녀가 자기들의 딸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실내물놀이장도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연건평 10만여㎡, 문수물놀이장의 방대한 면적이 사람들의 웃음으로 꽉 들어차있는듯싶었다.

문득 문수물놀이장 가까운 아빠트에서 산다는 한 로인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음속에 사니 나날이 젊어지는것만 같다오.》

우리와 만난 직장장 현영식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루 평균 1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문수물놀이장을 찾고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준공하여 그해 겨울, 올봄, 여름 사람들의 물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 문수물놀이장이야말로 사계절 흥성이는 곳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하시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인민의 행복, 그것이 우리 장군님의 소원이였고 장군님의 소원은 우리 원수님의 리상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친히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자신께서 직접 설계가, 건축가가 되시여 이토록 훌륭한 물놀이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것이 아닌가.

참으로 문수물놀이장은 당의 해빛아래 웃음꽃이 사계절 피는 인민의 문화휴식터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년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1)

참관기

얼마전 우리는 풍치아름다운 보통강기슭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를 정중히 모신 《승리》상을 중심으로 총부지면적이 9만 3 000㎡에 달하는 드넓은 지구에 꾸려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본관 및 대전관, 야외전시장, 교양마당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본관에는 항일무장투쟁관과 정규무력건설관, 작전관, 당정치사업관, 중국인민지원군관을 비롯한 여러 전시관들이 있으며 본관과 대전관을 련결하는 공중복도에는 영웅관이 꾸려져있다. 또한 본관과 별도로 대전관이 꾸려져있으며 사적 및 공훈무기전시장을 비롯한 야외전시장이 자리잡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이 빛을 뿌리는 문주를 거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교양마당에 들어서면 전승기념탑의 중심주제인 《승리》상이 우렷이 안겨온다.

1950년대의 조국방위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기상이 나래치는 《승리》상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가 정중히 모셔져있다.

《승리》상을 지난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본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웅장화려하게 꾸려진 본관의 중앙홀에 들어서니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이 숭엄하게 안겨왔다.

60여년전 그날 전승의 광장에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색조각상으로 정중히 형상한 립상을 우러르면서 참관자들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슴벅차게 새겨안으며 1층의 항일무장투쟁관에 들어섰다.

항일무장투쟁관의 첫 전시실에 들어선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말하였다.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의 귀중한 유산인 두자루의 권총을 넘겨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선군의 총대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안게 하는 뜻깊은 화폭앞에서 참관자들은 누구나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무장한 적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싸워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히시여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지!

참으로 주체적인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창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과 전민항쟁에 이르기까지 항일무장투쟁관에 전시된 하나하나의 사적자료들과 전시물마다에는 선군의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로 마감지어지는 항일무장투쟁관에서 참관자들은 항일의 기치, 백두산총대야말로 우리 수령님께서만 추켜드실수 있는 승리의 기치, 무적의 총대였으며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자랑찬 력사적뿌리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하며 정규무력건설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참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몸소 제작하신 조선인민군의 첫 군기와 정규무력건설시기의 각 군종 군복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수여하신 우리 나라의 첫 기관단총을 돌아보면서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해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심혈과 로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작전관이 자리잡고있는 2층으로 참관을 이어갔다.

작전관의 첫 전시실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귀전에 1950년 6월 25일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때 호탕한 웃음속에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우리 수령님께서 그날에 하신 무비의 담력과 승리의 신심에 넘친 이 유명한 말씀은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더불어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불굴의 투쟁정신과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계에 떨쳤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안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삶과 행복의 요람인 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해방전쟁에 용약 떨쳐나섰다.

즉시적인 반공격을 개시한 인민군부대들은 서울을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였다.

전시실에 특색있게 꾸려진 서울해방전투반경화는 다른 반경화들과는 달리 참관자들이 직접 실물처럼 형상된 전투장소를 돌아보면서 서울시내로 돌입하여 괴뢰중앙청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린 인민군용사들의 전투행동을 생동하게 볼수 있게 된것으로 하여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였다.

강사는 우리 인민군대가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물리치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써 불과 한달남짓한 기간에 공화국남반부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세계전쟁사상 보기 드문 혁혁한 전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눈부신 승리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을 빛나게 장식하고있다고 격동에 넘쳐 말하였다.

기념관에는 하나의 독립적인 전시관을 이루며 대전관이 특색있게 꾸려져있다.

높고낮은 산발을 배경으로 펼쳐진 불타는 대전시가, 거리와 마을마다에서 원쑤들을 무찌르며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인민군용사들, 인민군대의 번개같은 공격과 포위전에 직면하여 독안에 든 쥐마냥 녹아나는 미제침략자들의 몰골과 대전을 해방시킨 인민군전사들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남녘인민들의 감격에 넘친 모습들…

강사는 인민군부대들이 대전해방전투에서 이른바 《상승사단》이라고 하던 미24사단과 괴뢰군패잔병들을 완전히 격멸소탕하였으며 사단장 떤은 나어린 인민군병사에 의해 포로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작전관에서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이곳에 형상되여있는 철다리와 그우에 놓여있는 군용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군용차로 림진강철다리의 침목을 하나하나 넘어 전선으로 나가시였던 그날을 그려보게 하는 림진강철다리와 군용차는 불비속을 뚫고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전선과 후방의 수천수만리길을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를 뜨겁게 전하고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승리가 그처럼 아슬아슬한 위험의 순간과 고비로 이어진 수령님의 전선길에서 마련된것임을 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탁월한 전법과 세련된 령도, 군대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타승하였으며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불세출의 영웅이시다.

참관자들은 패배관에 형상되여있는 《무덤장군》의 비참한 몰골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울때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으며 다음장소로 참관의 길을 이어갔다.

본사기자 리남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는 참관자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선군정치는 평화수호,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전진시켜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열의가 온 강산을 뜨겁게 달구는 7월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을 지도,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응도방어대를 시찰,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케트발사훈련, 조선인민군 한 군부대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에서 지도…

원쑤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을 단호히 제압하시며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온 겨레는 그이의 선군정치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위업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정치이라는 진리를 더욱 굳게 새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로 쏠리고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면서 북침흉계를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지난 11일 남조선에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끌어들인 미국은 괴뢰호전광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다. 내외호전세력은 우리를 핵항공모함으로 위협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하지만 적들의 그 어떤 침략적도전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놀래울수 없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항시적인 타격태세를 갖추고있는 무적의 혁명강군과 자위적핵억제력이 있어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내외호전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은 걸음마다 철저히 분쇄되고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의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의 도처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짓밟히고있는 오늘 조선민족이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선군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자주와 존엄의 위대한 기치로,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으로, 민족번영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선군정치는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주는 위력한 보검이다.

평화를 수호하자면 강력한 자위적방패가 있어야 한다. 지난날 군력이 약하여 나라를 통채로 잃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의 피눈물나는 력사의 교훈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로, 침략정책의 희생물로 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의 기나긴 나날 조선반도에는 우리 민족이 언제 핵전쟁의 참화를 들쓸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왔다. 하지만 그토록 험악한 정세하에서도 전쟁은 억제되여왔으며 도발자들은 저들의 침략적기도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외세의 침략적도전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속에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지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에 의해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감히 덤벼들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억제력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다. 핵억제력을 포함한 우리의 막강한 군사적잠재력은 조선반도평화수호의 근본담보로 되고있다. 선군정치야말로 무적필승의 총대로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물리치며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으로서 해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륭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위대한 기치이다.

통일된 나라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는것은 온 겨레의 숙망이다. 우리 겨레의 이 간절한 념원은 애국애족으로 충만되고 민족수호의 믿음직한 방패로 위용떨치고있는 선군정치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선군정치를 떠나서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도, 겨레의 안녕과 행복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장래운명과 무궁번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전략적선택이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조국통일위업의 실현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외세가 힘으로 전조선반도를 지배하려 하고 민족분렬의 비극이 지속되는 한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지극히 명백하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방해하는 외세의 침략적도전은 선군의 힘으로 억제해야 한다.

지금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해내외의 온 민족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선군정치가 열어준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따라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각계층 동포들속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자주와 존엄의 상징으로 빛을 뿌리는 선군, 이것이 없다면 삼천리강토도 없고 민족도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선군지지, 선군옹호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따르는 길에 조국통일도, 민족번영의 새시대도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김 향 미

조선통일의 기치—우리 민족끼리

여러 나라 신문 글 게재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글을 게재하였다.

인디아신문 《파블리크 뉴스》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조선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그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변함없이 조선통일의 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투철한 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조선의 분렬은 민족내부의 그 어떤 모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전조선과 아시아대륙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조선의 통일은 오직 그 주인인 조선민족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조선인민의 평화수호의지가 비껴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곧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가 여직 체험해보지 못한 열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반영하고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조선반도에 펼쳐졌던 경이적이고 감동적인 현실은 전민족이 단합할 때 통일이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고수하고 실천하는 길에 조선민족의 통일과 번영이 있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사진과 함께 《조선의 통일을 위한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6.15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고 강조하고 선언발표후 북남관계에서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는 《6.15공동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소개하였다.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제22차대회 진행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체련) 제22차대회가 12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배익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김상일 상임위원, 김로현 체련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 등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이 랑독되였다.

리청경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의 체육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체련이 지난 시기 조국의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업과 조국통일사업, 대외사업을 활발히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총련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광범한 동포체육인, 체육애호가들을 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군중체육활동을 강화하며 청소년선수육성사업에 각별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국의 체육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특색있게 기여하며 대외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대회에서는 체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성에서 보내온 축전이 랑독된 다음 토론들이 있었다.

배익주부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체련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수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육성, 배출하고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군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체련과 체육인들이 앞으로도 체육활동으로 총련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참답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체련 회장으로 김로현이 다시 선출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체련 상임리사회 제22기 제1차회의 확대회의가 있었다.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을 단호히 규탄한다

벨라루씨단체들 공동성명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쏘련영웅엔.이.호브린해군원수명칭 국제쏘련군관동맹 벨라루씨지부, 《조국과 쓰딸린을 위하여》국제사회련합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유로운 생활을 창조해나가고있던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1945년에 패망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다는 명목밑에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시작된 조선의 분렬은 지금까지 지속되고있다.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후에 일으킨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이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영웅적으로 싸워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승리를 이룩하였다.

미국은 61년전 저들이 항복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조선반도의 남쪽에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였으며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항시적으로 벌리면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압살책동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평화수호의지와 그를 충실히 받들어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실패만 거듭하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조선민족이 미국의 침략책동을 종식시키고 단결된 힘으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을 바라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의 북쪽에서는 모든것이 안정되고 인민들이 참다운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나 외세가 강점한 남쪽에서는 사회의 분렬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폭압이 범람하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정책을 단죄한다.

조선에 대한 군사적압력을 규탄하며 조선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길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로므니아정계인사 담화 발표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가 6월 24일 인터네트홈페지 《주체사상》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월 25일은 미국이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킨 날이다.

당시 미국은 남조선뿐아니라 저들의 추종국가무력까지 총동원하여 조선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발악하였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군사전법과 전략전술 그리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굴의 조선인민의 힘을 꺾을수 없었다.

3년간의 피어린 전쟁에서 조선인민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7월 2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에 미국을 타승한 전승의 날로 기록되였다.

전쟁이 끝난지도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선반도에는 평화가 깃들지 못하였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거듭되는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가 흐르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이것은 철두철미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 다름아닌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모든 침략무력을 즉시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도이췰란드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단체가 인터네트홈페지에 글을 올렸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은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까밝혔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조선을 《침략》한듯이 진실을 외곡하고있다.

1945년에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괴뢰군을 조작하고 확대하였다. 미국은 또한 남조선괴뢰군을 끊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에로 내몰았다.

1950년 6월 17일 트루맨의 특사로 남조선에 날아든 덜레스는 조선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북을 불의에 침공할데 대한 비밀지령을 하달하였다. 미군고문들의 지휘하에 남조선괴뢰군은 1950년 6월 25일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당시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미국이 왜 6월 25일을 전쟁개시날자로 택하게 되는가 하는 리유에 대하여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실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꾸바에서

꾸바외무성이 3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부당한 반꾸바제재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최근 꾸바를 포함하여 저들의 《제재대상》에 올라있는 나라들과 거래를 한 프랑스의 한 은행에 벌금부과조치를 취한데 대해 언급하고 그것을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지난 50여년간에 걸쳐 가해지고있는 미국의 반꾸바제재야말로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범죄행위이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바레인에서

바레인외무성이 7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외교관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성명에서 그 무슨 방문을 구실로 기여든 미국외교관이 바레인의 반정부세력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에로 사촉한 사실에 대해 까밝히고 그것을 외교관례를 무시한 내정간섭행위로 락인하였다.

외무성은 그를 환영할수 없는 인물로 선포하고 그가 즉시 바레인을 떠날것을 요구하였다.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대통령 마힌다 라자파사가 얼마전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부 극단주의적인 행동과 종교적갈등으로 나라에 이룩된 평화와 안정이 침해당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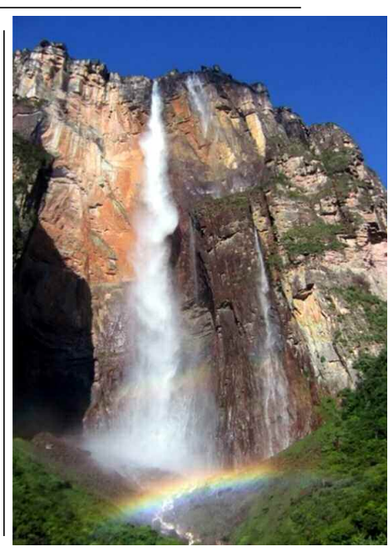
그는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웰남과 필리핀이 2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1일 마로끄와 꼬뜨디봐르는 농업연구분야에서 호상 협력해나갈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폭포

딸라에 등을 돌려대는 유럽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보도

최근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유럽에서 미국딸라를 배척하는 기운이 고조되고있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유럽기업들이 미국딸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있다.

그러한 경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여왔으나 미국정부가 프랑스의 한 은행에 수단, 이란, 꾸바와 딸라로 거래하였다는 리유로 벌금부과조치를 취한 후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특히 프랑스의 대다수 기업들이 딸라에 등을 돌려대기 시작하였다. 프랑스국가은행 총재가 먼저 국제무역결제에서의 통화의 다양성을 제안하였으며 이어 이 나라 《또딸》석유회사 리사가 원유대금을 딸라로 결제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립장을 밝혔다. 프랑스재정성 부상은 마침내 딸라대신 유로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프랑스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결제에서 유로를 최대한 리용할것을 권고하고있다.

딸라시세가 떨어질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조성되고있다. 이제는 유럽권에서도 국제무역결제에서의 다양한 통화결제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만행 규탄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가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의 야만적인 행위로 하여 강점된 팔레스티나령토가 지옥으로 변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성명은 가자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야만적인 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외무성이 8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이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가자지대의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이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락인하였다.

팔레스티나인민에 대한 수리아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성명은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파키스탄외무성도 9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만행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수많은 가자지대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은 파키스탄정부가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에 기초하고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위업을 일관하게 지지하여온데 대해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항의시위와 집회, 파업

▲요르단의 암만에서 9일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또한 뽀르뚜갈의 리스봉시에서 10일 당국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채무위기해소를 구실로 긴축조치를 취하고있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도꾜에서 최근 당국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책동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수상관저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 반대하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자위대》에 《집단적자위》의 명목밑에 해외군사작전에 참가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였다.

▲그리스에서 최근 전력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벌어지고있다. 3일부터 시작된 파업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파업참가자들은 경제위기를 구실로 전력부문을 사영화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파업으로 전력생산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또한 프랑스의 전국각지에서 최근 철도운수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있다.

1주일동안 벌어진 파업에는 이 부문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철도개혁안 도입을 걷어치울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에 나선 영국인들

과연 미국에 진실한 벗이 있는가

얼마전 도이췰란드에서 정보기관에 종사하던 31살 난 요원이 비밀문서들을 미국련락원에게 넘겨준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외신에 의하면 그는 도이췰란드에서 벌리고있는 미국정보기관의 도청행위를 조사하는 국회조사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는 이미전부터 미국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200여건의 비밀자료를 절취하여 미국으로 빼돌렸다고 한다.

사건발생후 도이췰란드는 조사에 착수한다는것을 발표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고있다. 도이췰란드외무성은 자국주재 미국대사를 호출하여 항의하고 이번 일을 그저 스쳐지나보낼수 없으며 미국이 사건조사에 성실히 협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바빠나게 된것은 미국이다. 그도그럴것이 지난해 미정보기관이 도이췰란드수상의 전화통화내용을 정기적으로 도청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로 하여 미국이 난처한 립장에 빠져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기때문이다.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을 내세워 저들의 간첩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이췰란드와 협력할것이라느니, 순수 정보활동상의 문제이라느니, 도이췰란드법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있기때문에 사건에 대해 평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며 어정쩡한 소리를 하고있다. 어떻게 하나 사건을 약화시키고 시간을 끌면서 형편을 보아가다가 유야무야해보려는 속심이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명백한것은 그러지 않아도 어성버성한 두 나라관계가 악화될것이라는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미국의 너절한 본심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도이췰란드에 진실한 우방, 벗이라고 추파를 던져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은 다 걸치레에 불과한것이고 속심은 딴데 있었다고 볼수 있다. 요컨대 겉으로는 제 살이라도 떼줄것처럼 놀아댔지만 실지로는 등치고 간빼먹는 놀음을 벌려왔다는것이다. 미국은 도이췰란드를 얼려넘겨 속을 뽑아 저들의 리속을 차리려 하였다.

문제는 이것이 도이췰란드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은 도이췰란드는 물론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정탐행위도 일삼아왔다.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서라도 지난해에 드러난 동맹국들의 고위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 및 정탐활동을 들수 있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국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을 동원하여 우방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들을 비롯한 고위인물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전화통화내용까지 도청하여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미국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정탐행위를 한것은 지난 시기에도 있었다. 그 대표적실례가 에쉘론사건이다.

에쉘론으로 말하면 지난 세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탐활동을 목적으로 만든 전자도청체계이다. 에쉘론은 생겨난 때로부터 철저한 극비대상으로 되여 흑막속에 가리워져있었다. 서방세력은 이 도청체계를 리용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던것이 1990년대말에 와서 정체가 드러났다.

미국이 서유럽나라들에서 정보자료를 뽑아내여 저들의 리속을 차리는데 에쉘론을 리용하여 왔다는것이 폭로되였던것이다. 격분한 동맹국들이 에쉘론에 대한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그 내막을 파헤쳐놓았다. 이렇게 되여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배신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미국은 깨깨 망신당하였다. 미국은 에쉘론을 통한 정탐활동으로 숱한 리득을 보았으며 유럽나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990년대 유럽나라들이 중동의 어느 한 나라를 대상으로 비행기판매계약을 추진할 때에 미국은 에쉘론을 통해 그 내용을 탐지해가지고 자기 나라 항공회사에 통보해주어 유럽을 밀어내고 계약을 맺도록 하였으며 일본회사가 인도네시아와 무선통신망계약을 체결하려던 계획을 파탄시켰다.

미국은 지어 에쉘론의 발기자이고 동업자였던 영국의 내정까지 렴탐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미국의 정탐활동에 동맹국들도 아연해하며 침을 뱉았다.

당시 스위스의 어느 한 신문은 에쉘론을 통한 미국의 정탐활동에 대해 《유럽은 동맹국인 미국이 유럽동맹의 심장부를 그렇게 깊이 파고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썼으며 다른 유럽나라 출판보도물들도 미국의 도청 및 정탐행위로 인하여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해마다 수백억US$의 물질적손실을 입은데 대하여 까밝히면서 미국의 정탐활동을 규탄하였다.

사람들은 미국의 어제와 오늘을 보며 이렇게 묻고있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속옷까지 벗기려드는 미국에 과연 진실한 벗이 있는가고.

본사기자 리 학 남

ㄱ-41110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